

# 정례브리핑

2020.8.10(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될 통일견기대회 해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해단식은 일정만 공개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북한 호우 피해 상황 관련해서 통일부가 파악한 내용 듣고 싶고요. 또 이로 인한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여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관련 사항은 제가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김정일' → '김정은'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북한의 연일 폭우, 수해 방지를... 현장을... 수해 방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후 처음으로 폭우 및 수해 상황을 수해 상황 직후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은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황해북도 은파입니다.

황해북도 은파는 참고로 개성시와 약 8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도 나선시에 현지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홍수피해 복구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은파지역 방문은 보다 신속하게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월에 북한의 호우 상황은 지금까지 최악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의 경우 약 7일간 500 내지 700mm가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 8월이, 올해 8월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8월 6일 자 북한 방송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이번 주 8월 1일부터 6일까지 내린 강우량이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약 854mm로 이는 북한 연평균 강우량 960mm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성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면 8월 평균 강우량 약 275.7mm인데요. 이번에 같은 기간 8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내린 개성지역의 강우량이 423.9mm로 8월 평균 강우량의 약 154%에 해당해서, 아마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또 물 관리에 따른 애로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황강댐 방류 현황 관련해서는 제가 좀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있는데, 북한 황강댐의 구조가 다목적댐이고 또 이것이 사력댐이어서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에 월류 시 댐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황강댐 방류 시에 우리 측에 사전통보를 해주면 우리도 임진강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안전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데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황강댐을 방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아직 못 하였다는 건지.

**<답변>** 황강댐 방류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폭우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강댐은 일정하게 방류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이지 방류 자체가 없었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기 우리 쌀, 우리 설탕하고 북한 술 바꾸자고 계약 체결한 북측 회사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업체와 같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관련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보도와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해 관련해서 그렇다면 북한 지원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그것 관련해서 지원하겠다, 접촉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방금 질문하고 관련해서요. 그러면 물물교환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당국은. 그 과정에서 한미가 좀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이?

<질문> 물물교환 승인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워킹그룹 없이 추진을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채널이라도 한미가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북측 지역의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습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사무검사 한다고 예고했었는데, 이번 주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그리고 단체들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25개 1차 대상 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 응하고 있는 건지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사무검사는 이번 주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검사에 앞서서 사무검사란 것은 단체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모두 25개 단체 전부가 다 그런 뜻을 표시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시민단체 특히, 탈북단체들의 재정에 대해서 지난 외통위에서 관련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수미 변호사가요. 그래서 이번 사무검사 항목 중에도 후원금이나 지원금 내역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그 증빙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원래 사무검사의 취지나 목적이 정관상 사업이 제대로 운영...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그 단체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수해 복구, 수해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아까 원론적인 입장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나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북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만 정

부는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여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은 교역'에 대해서, 물물교환 형태의 작은 교역에 대해서 미국 측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해를 받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반응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워킹그룹 형태의 자리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계기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을 때 미국 측에서도 추진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습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께서 아까 일정 수준 이상 수위가 차면 방류를 해야 되는 게 황강댐의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정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상예보를 보고 그 주민들한테 대피를 당부한다거나 그렇게 미래를 좀 대비를 했었어야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그 질문에서 제기하신 것처럼 황강댐이 일정하게 방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과 또 방류를 했을 때 우리 측에 알려줘서 우리가 재난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강댐의 방류해야 되는 그 사정도 이해가 가지만 북측이 방류 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면 우리가 이런 수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아주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